



Hello, I am Sister Claudia Stehle, the daughter of Gilbert and Marie Stehle. I was a sibling to 3 brothers and an older sister. A native of Troy Hill, we moved to Brookline when I was three years old. I attended Resurrection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58. I completed degrees in education at Seton Hill University and Duquesne University. My early ministries included 17 years as a teacher followed by 16



years as an Elementary Principal.

In the last four summers as a Principal I earned an MSA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with an emphasis on Non-Profit organizations.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as the Pittsburgh



Diocese was merging parishes. In 1992 I was hired as a Business Manager in one of the new mergers. As a Business Manager I was the steward of the physical, financial and personnel resources of the parish. I continued in that position for another 25 years in various parishes.

Presently I am employed part-time with the Mercy Sisters at the Intersection as the Assistant Director of Finance. This ministry serves the poor and homeless in the McKeesport area. My main responsibilities are to process all donations, acknowledge donors, pay invoices, and help secure grants for the ministry. I also am serving part-time as the Coordinator of Central Checking at DePaul Center. In this ministry I prepare the monthly revenue and disbursements report so that our Treasurers can balance their



checkbooks.

It's not been all work and no play. Over the years I have enjoyed basket weaving and cross stitching. My premise as a Sister of Charity, educator, administrator, and Business Manager has been to be a wise steward over the goods entrusted to my care.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스테홀 Claudia Stehle 수녀입니다. 아버지 길버트 스테홀과 어머니 마리 Gilbert and Marie Stehle슬하에 세 형제와 언니 한 명이 있습니다. 트로이 힐Troy Hill에서 태어나 3살 때 브룩클라인Brookline으로 이사를 왔고, 부활 성당의 초등 및 중학교Resurrection school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를 다녔어요. 1958년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씨튼 힐 대학교와 듀케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도직을 시작하여 이어 16년 동안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어요.



교장으로 사도직을 하면서 마지막 4년 동안 여름에 노트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비영리 단체에 중점을 맞추어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츠버그교구가 본당을 합병하면서 이 학위는 저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1992년에 새로 합병된

본당 중 한 곳에 비즈니스 매니저로서 사무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되어, 그 본당의 물리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당 이후에도 같은 사도직으로 25년 동안 여러 본당에서 일했습니다. 현재는 봉사 단체인 인터섹션Intersection에서 재무 담당 부책임자로서 자비의 수녀회 수녀님들과 함께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섹션은 피츠버그 맥키스포트McKeesport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노숙인들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기부금과 기부 물품에 관련한 일을 처리하고, 기부자들을 확인하고, 서류를 보내고, 보조금을 받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수녀회의 관구 사무소인 드폴 센터DePaul Center에서 수표관련 업무 담당자Coordinator of Central Checking로서 파트타임 사도직도 하고 있어요. 이 사도직에서 저는 수녀회의 회계 담당자들이 수표 계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월별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만하고 즐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바구니 짜기와 십자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녀로서, 교육자로서, 행정가와 관리자로서 제가 가진 마음가짐은 저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